

# 2022년도 제1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6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2년 3월 17일
4. 회부일자 : 2022년 3월 23일

### II.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체계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조 3,688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4조 2,449억 2천 8백만원에

대비하여 2.5%(1조 1,239억 4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조 1,964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311억 5천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조 1,723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927억 9천만원) 증가하였음.

###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5,368,869	44,244,928	1,123,941	2.5
일 반 회 계	32,196,499	31,365,348	831,150	2.6
특 별 회 계	13,172,369	12,879,579	292,790	2.3

###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2년 제1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590억 7천 1백만원) 대비 2억 8천 2백만원(0.5%) 증가한 593억 5천 3백만원임.

- 정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추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편성하였음.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비 고
59,353	59,071	282	0.5	▪ 기금 282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3,811억 1천만원) 대비 277억 8천 8백만원(7.3%) 증가한 4,088억 9천 8백만원임.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08,898	381,110	27,788	7.3	
일반회계	계	398,877	371,089	27,788	7.5
	행정운영경비	442	442	-	-
	재 무 활 동	99,876	94,976	4,900	5.2
	사 업 비	298,559	275,672	22,887	8.3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10,021	10,021	-	-
	사 업 비	10,021	10,021	-	-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10억 8천 9백만원에서 7.5%(277억 8천 8백만원) 증가한 3,988억 7천 7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사업별 증액내역은 다음과 같음.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9천 9백만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78억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00억원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1억 2천만원
-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신규)	9억원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5억원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9천 9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49억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30억 7천만원

###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2022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의 개선과 내수 경제의 회복, 수출·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경제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 말 73.2달러에서 올해 3월 24일 기준 115.6달러로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도 3.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소매판매액지수<sup>1)</sup>는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전년 말 2.2%에서 2022년 1월 △1.9%로 감소하였음.
-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미크론 확산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3.3%)보다 0.3%p 낮춘 3.0%로, 2023년은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1) 소매판매액지수 :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에서 매월 판매금액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임.

- 이에 정부와 국회는 악화된 방역상황과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가중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조 9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하는 바 있음(국회 본회의. 2. 21. 의결).
-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현금 지원사업(13조 5천억원)과 생활지원비,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 기타사업(2조 8천억원), 예비비(6천억원) 등으로 편성됨.
- 그러나 최근들어 오미크론 확진자가 일평균 60만명을 정점으로 확산되고 물가불안·금리상승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으로 인한 방역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자산·소득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조 1,239억 4천 1백만원 증액(2.5%)된 45조 3,688억 6천 9백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민 생 · 일 상 회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위기업종 일상회복 지원(매출감소 소상공인 7.7만개소, 개소당 백만원 지원)</li> <li>▶ 소기업·소상공인 종사자 대상 2만명 규모 고용장려 및 고용유지 지원</li> <li>▶ 청년 재무상담(영테크) 4,500명 및 대중교통 요금 지원 75,000명 확대</li> <li>▶ 대중교통 재정지원(지하철 1~8호선 및 시내버스 각 1천억원, 마을버스 1백억원)</li> <li>▶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 하천 유지보수 등 녹색 여가공간 기반 조성</li> </ul>	4,248
방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취약계층 904천명 대상 자가검사키트 530만개 제공</li> <li>▶ 재택치료자 상담센터 4개소, 소아 전담 상담센터 1개소 설치·운영 등</li> </ul>	2,061
안   심   ·   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확충, 외국인 아동 보육료 한시 지원 등</li> <li>▶ 서민주거 안정 기반마련(민간토지 활용 상생주택 70호 등)</li> <li>▶ 중대재해 예방 위한 도로시설물, 하천, 공원 등 안전관리 강화 등</li> <li>▶ 9호선 전동차 구매, 주택가 주차장 추가조성 등 교통인프라 조성</li> </ul>	1,130
의 무 경 비 등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800

##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가. 세 입

- 2022년도 제1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593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천 2백만원(0.5%)이 정부기금<sup>2)</sup>에서 증액되었음.
- 정부(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4개 시장<sup>3)</sup>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2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이전된 세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은 세입과목을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구로구 구로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영등포구 영일시장, 종로구 신설종합시장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59,353	59,071	282	0.5
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6,758	26,476	282	1.0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829	1,547	282	18.2

### 나. 세 출

- 세출예산은 4,088억 9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277억 8천 8백만원(7.3%)이 증액됐음.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사 유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합계	(x51,796) 408,898	(x51,514) 381,110	(x282) 27,788	
추가경정예산사업 계	(x1,829) 172,290	(x1,547) 144,502	(x282) 27,788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267	168	99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본청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16,768	8,968	7,800	한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3,000명, 최대 3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75,900	65,900	10,000	소상공인 보증공급 추가 - 신용보증재원 4,900 - 보증료 재원 5,100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2,976	2,856	120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풍물시장 배수로 보수공사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900	-	900	경영위기업종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 지원금은 재난기금으로 편성(770억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1,310	810	500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 예산 추가 편성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x1,829) 2,539	(x1,547) 2,140	(x282) 399	정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매칭예산편성(4개 자치구 4개 시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66,876	61,976	4,900	창업·재창업 자금 3천억원 추가 공급에 따른 무이자 보전 비용(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4,754	1,684	3,070	-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원 발행(2,720백만원) -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350백만원)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sup>4)</sup>,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지(목적 적합성),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예측불가능성), ▶예비비 등 다른 수단의 사용은 곤란한지(보충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인지(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신종변이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고 코로나19도 3년째 지속되어 관련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4)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후단 생략)

### 3. 주요 사업 검토

#### 가.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105쪽)

- 정부 손실보상금과 서울시 임차상인지킴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영 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운영경비로, 9억원을 신규 편성했음.

#### <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00	-	900
사 무 관 리 비	20	-	2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	-	3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 탁 사 업 비	580	-	580

-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로 인해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반 경영위기업종<sup>5)</sup>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서울시는 올해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매우고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매출 단가가 높아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일부 업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음.

5) 국세청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함.

- 이에 매출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손실보상 제외 경영위기 업종과 연매출 기준(2억원) 초과로 인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약 7만 7천개소를 지원하고자 함.

### <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7만 개소 (경영위기업종(20만개)-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수령대상(13만개)+보정치 10%)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수령대상 제외</li> <li>○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총사업비 779억원=재난기금 770억원+행정운영경비 9억원)</li> <li>○ 지원대상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고,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 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 경영위기업종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신속지급</li> <li>○ 신청방법 : 5월 중 온라인신청 신청 원칙(서울신보), 필요시 현장(자치구) 접수</li> <li>○ 처리절차</li> </ul>
--

  

신청접수	⇒	신청사항 검토	⇒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원금액 지급
소상공인		서울신보		서울신보		자치구

- 총 사업비는 779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금(770억원)<sup>6)</sup>을, 일반회계에서 지원경비(9억원)를 편성했으며, 신청사항 검토, 지원대상 여부 결정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행할 예정임.

- 지원경비는 ‘사무관리비’ (2천만원)와 기간제인력 인건비(1개월), 사무기기 임차비용 등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8천만원), 자치구 홍보비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원)으로 구성됨.

6) 재난관리기금에 지원금을 편성한 이유는 재정지원의 조례상 근거가 더 명확하고, 사업예산의 부족이나 불용 발생시 기금이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임.

-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취지는 인정됨.
-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사례에서 국세청 매출 자료의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과거 매출기록을 대상자 추계에 활용함에 따라 사업비(5천억원)의 30~40%가 불용될 상황이므로 국세청 협조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지급기준과 대상, 지원 규모에 대한 시민의 혼란이 지속되고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급경로, 방법, 주체 등을 일원화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별설명서 87쪽)

-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9천 9백만원 (58.9%) 증액한 2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했음.

####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사 무 관 리 비	267	168	99

-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콘텐츠 개발, 안전보건 의무 이행실태 점검, 위원회 운영 등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본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무화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위험성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임.

###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비 산출 근거 >

- 직접인건비 : 90백만원
  - 인건비 : 86,400,000원(320,000원×3명×90일)
  - 출장비, 재경비 등 기타비용 : 3,600,000원
- 부가세 : 9백만원

- 2021년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본청 소속 일부 현업부서(40개)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고, 올해에는 위험성 평가 대상을 본청 소속 전 부서(164개)로 확대하게 되었음<sup>7)</sup>.
- 법률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에서 시행까지 1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법률 시행에 따른 필수사항들을 준비하도록 했으므로 추경사업으로 편성될 정도의 시급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움.

7) 서울시 소속 사업소 등은 자체 예산으로 위험성 평가 용역비를 편성함.

- 향후에는 법정 필수사항이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추경으로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별설명서 92쪽)

-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9억 6천 8백 만원에서 78억원을 증액하였음.

####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6,768	8,968	7,800
사 무 관 리 비	640	64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	6	0
민간경상사업보조	700	700	0
민 간 위 탁 금	14,422	7,622	7,800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수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이하 “종합지원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디지털 맞춤 서비스 제공,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창업기) 교육, 현장체험(멘토링), 창업컨설팅 및 사후관리
  - (성장기) 자영업클리닉, 시설개선비용 지원, 자영업협업화 지원 등
  - (재도전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재도전 창업자 패키지 지원
-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디지털 맞춤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종합 지원포털 운영, 유지·보수
  - 상권현황정보 제공 및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운영·고도화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또한, 재단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컨설팅-보증지원-사후 관리’의 입체적·종합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재기 기회 부여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재도전기에 있는 폐업 소상공인 3천명에게 사업 정리(200만원)와 재기준비지원금(100만원)을 합쳐 개소당 3백만원씩 지원하는 74억원과 사업수행 대행비 4억원을 편성했음.
  - 당초 본예산에는 800명을 대상으로 개소당 2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6억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한계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대상과 지원금을 각각 3천명과 3백만원까지로 확대하게 됨.
- 최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 대출 일시상환과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폐업 비용과 재기준비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시의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사업정리와 재기 지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이 목표이나<sup>8)</sup>, 재창업 실적 등 지원성과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8) ‘2021년 사업정리 비용지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43.8%의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창업준비중 이라고 밝힘.(2022.1.25.~2022.1.26., 1,212명 중 210명 대상 전화설문)

## < 최근 3년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지원실적 >

(단위 : 건 / 원)

연 도	지원대상	실 적			지원후 재창업 계획 비율(%)
		지원점포	점포당 지원금액	총 사업비	
2019	사업정리 검토중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234	1,500,000	313,098,000	32.3%* (표본 127명)
2020	사업정리 검토중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754	2,000,000	1,454,517,000	35.0%* (표본 100명)
2021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1,212	2,000,000	2,137,651,000	42.2%* (표본 154명)

\* 「2019~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폐업점포 채도전 장려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기지원 이차보전(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등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면밀한 사업설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97쪽)

-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위기에 놓인 창업·재창업 소상공인의 재기도약과 빠른 사업안착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지원과 무이자·무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100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였음.



##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출 연 금	75,900	65,900	10,000

-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16억 3천만원 규모의 보증재원과 보증료 보전 재원을 증액하였음.
- 2022년 본예산은 안정적이고 지속적 보증공급을 위한 최대 운용배수 (12.5배)<sup>9)</sup> 유지와 4무 안심금융 시행에 따른 보증료 지원을 위해 659억원<sup>10)</sup>을 출연한 바 있음.
- 지난해부터 이어진 융자지원 확대 조치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속화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sup>11)</sup>과 영업악화<sup>12)</sup>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재기 도약할 창업·재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단출연금(100억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9) 재단은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운용배수(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로 5~7배를 유지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이 급증한 이후 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등을 감안한 최대 운용배수를 12.5배까지 확대 운용하였음.

10) 신용보증재원 485억원, 보증료 보전재원 174억원

1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를 살펴보면 올해 2월 103으로, 지난해 6월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인 110을 기록한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12) 올해 2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37.5로 전월 대비 6.8p가 하락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2020년 3월 29.7)로 낮았음. - '2022년 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2.)

### < 출연금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출 연 금	○ 창업·재창업자금 신용보증 재원(사업자)	= 4,900
	○ 창업·재창업자금 보증료 재원	= 5,100
	증감사유	
	○ 총 3,000억원 창업·재창업 자금 : 기존 1,000억원+추가 공급 2,000억원 - 보증재원은 2,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기존 1천억원 재원은 기반영) - 무보증료 신규지원에 따라 보증료 재원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 ( 3,000억원 × 보증료율 0.5% × 3.4년(보증적수기간) )	

- 창업 1년 이내의 창업·재창업 소상공인에게 4무 안심금융을 3,000억원<sup>13)</sup> 규모로 신설하여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1년간 무이자 2년차부터는 0.8%포인트의 이차보전을 할 계획임.

### < 창업자금 신설 반영 계획(안) >

구 분	시행 중		신설
	일반(9천억원)	중저신용자(1천억원)	창업·재창업자금(3천억원)
지원대상	신용평점 595점 (舊 7등급) 이상	신용평점 839점 (舊 4등급) 이하	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교육 이수, 신용평점 595점 (舊 7등급) 이상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2천만원 이하 한도심사 생략)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無 보증료, 無이자(1년), 서울시 이차보전 0.8%(2~5년)		좌 동
지원실적	5,698억원	172억원	-

- 지난해부터 실시한 4무 안심금융의 신청폭주로 보증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sup>14)</sup>에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되나, 기존

13) 기존 창업자금 1,000억원에 추가로 2,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14) 지난해 6월 9일 최초 시행한 '4무 안심금융'은 한 달 만에 신청 마감하였으며, 11월 추가 시행 역시 한 달 이내에 마감하였음. 올해(1.20일 시행)는 현재(3.18일 기준)까지 접수 약 65.0%, 실행 약

에도 지원받을 수 있던 창업·재창업 대상만을 위한 별도의 자금 신설이 적절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지난해 재단에서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은 업체 중 창업기업의 비율은 9.0%, 올해 현재까지는 14.1%로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자금 신설 없이도 원활한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 4무 안심금융 지원업체 중 창업기업 비율 >

구 분		2021년 (12.31. 기준)	2022년 (3.11. 기준)
① 창업기업*	건 수	7,022	2,418
	금 액	1,617	593
② 전체	건 수	62,891	13,796
	금 액	17,905	4,199
비 율 (①/②)	건 수	11.2	17.5
	금 액	9.0	14.1

\* 창업기업 = 업력 1년 이내 (※ 업력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 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성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시된 신용보증 재원의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과 재단의 기본재산으로도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00억원의 신규 보증공급 증액 시 필요한 재원을 최대 운용배수로 계산하면 160억원<sup>15)</sup>이 필요한데 49억원만 편성되었고, 이마저도

57.0%로 집계됨.

15) 2,000억원(신규보증공급) / 12.5(최대운용배수) = 160억원(필요 신용보증재원)

재단의 운용배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11.47→11.41)<sup>16)</sup>이라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적합성과 충분성이 부족함(160억원 출연 시 운용 배수는 11.27임).

- 이처럼 신용보증재원을 추가출연하지 않더라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신규 보증공급은 가능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운용배수를 낮출 필요성은 있음<sup>17)</sup>.

### < 서울시 출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예상)
보증공급액	12,368	13,372	18,780	51,249	55,707	37,000
(A) 보증잔액	37,030	37,971	42,377	79,313	103,199	100,899
						...
당기순손실	346	228	397	926	788	1,188(추정)
(B) 기본재산	5,973	6,150	6,388	7,764	8,876	8,842(추정)
운용배수=(A/B)	6.20	6.17	6.63	10.22	11.63	<b>11.41</b>

- 한편, 2020년부터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에 대해 최저 보증료율<sup>18)</sup>을 적용하면서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기본재산이 잠식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에 대해서는 기준보증료율(1.0%) 수준<sup>19)</sup>의 적절한 재정보전이 필요함.

16) 신용보증재원 49억원 미 출연시 2022년 기본재산은 8,793억원(8,842-49)으로 추정되며, 예상 운용 배수는 11.47배(100,899/8,793)로 산출됨.

17) 일반적으로 보증공급 이후 2~3년 기간에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가장 많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았음. **지속가능한 적정 운용배수는 8~10배로 추정됨.**(리스크 요인 및 기본재산 기반의 적정 신용보증 규모 분석, 한국경제학회, 2021.7.)

18) 재단에서 보증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수립한 '보증료등의 운용기준'에 따르면, 기준 보증료율은 연 1.0%이며, 0.5%~2.0%범위에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최근 5년간 기본재산 현황 및 2022년 기본재산 추정 >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 <sup>주</sup>
전년도 기본재산(A)	5,973	6,150	6,388	7,764	8,876
당해연도 출연금(B)	397	633	2,302	1,900	1,105
당기순손실(C)	228	<b>397</b>	<b>926</b>	<b>788</b>	<b>1,163</b>
기본재산(A+B-C)	6,150	6,388	7,764	<b>8,876</b>	<b>8,819</b>

※ 서울시 출연금(485억원) 포함하여 2022년 4무 안심금융 보증공급 1조 감안 시, 출연금 및 당기순손실을 12월 말일 기준으로 추정

### 마.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101쪽)

- 청계천 복원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위해 조성된 서울풍물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2천 만원(4.2%) 증액된 29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했음.

##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976	2,856	120
사 무 관 리 비	772	772	-
민 간 위 탁 금	2,044	2,044	-
민 간 위 탁 사 업 비	160	40	120

- 서울풍물시장은 청계천과 동대문운동장 일대에서 노점형태로 영업

19) 기준보증료를 적용하면 보증료 재원은 102억원이 필요함(추경안 51억원).

하던 상인들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따라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교육청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장임.

- 조성 초기부터 800여개 점포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 수탁업체인 (주)백상기업이 운영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점검에서 외부 선홈통(rainwater pipe)<sup>20)</sup>의 배수 기능이 취약한 점이 발견되어 배수로와 우수맨홀의 설치비용을 민간위탁사업비<sup>21)</sup>로 편성한 것임.
- 서울시가 관할하는 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마련하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시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작년에 실시한 서울풍물시장 지붕막 공사시에 배수문제가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에는 합리적인 시설물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편성이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20) 빗물을 내리기 위하여 지붕에서 땅바닥까지 수직으로 댄 홈통

2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 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별설명서 108쪽)

- 명절 등 특정시기에 전통시장 여건에 맞는 특색있고 매출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에서 5억원(61.7%) 증액된 13억 1천만원을 편성했음.

###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310	810	500
사 무 관 리 비	500	10	490
공 공 운 영 비	10	-	1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	800	-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에서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온라인 판촉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4억 9천만원)와 전통시장 이벤트 안내 홍보 사이트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1천만원)를 반영하였음.

### <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요 >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전통시장 140개소
- 추진방법 : 전문용역업체 및 자치구 참여 전통시장 공모
- 지원내용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및 홍보 지원
  - 라이브커머스 : '쌍방향 소통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판로 개척 지원(10개소)
  - 전통시장 홍보 :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동네 전통시장을 소개하고 명절이벤트 등 각종 정책 홍보
  - 전통시장 플랫폼 : 우리동네 전통시장 할인행사 및 이벤트 확인·이용이 용이하도록 전통시장 통합 정보 플랫폼 운영

- 이 사업은 지난 2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판로개척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장단의 요청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통시장의 주고객층인 50대 이상에서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경험이 높지 않으므로, 라이브커머스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20~40대가 주목할 수 있는 킬리콘텐츠를 발굴해야 할 것임.

#### 사.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별설명서 113쪽)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노후배선과 전등, 콘센트 등의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대형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에서 3억 9천 9백만원(18.6%) 증액된 25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했음.

####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x1,829) 2,539	(x1,547) 2,140	(x282) 399

- 정부(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신청접수(자치구) → 매칭비 편성(시) → 신청접수와 현장평가(지방중소기업청) → 서류평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거쳐, 중기부가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있음(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자부담 10% 이상<sup>22)</sup>).

22)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중 정부 공모에 추가 선정된 4개 시장<sup>23)</sup>에 대한 매칭시비(1억 1천 7백만원)를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음.

#### 아.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116쪽)

- 창업·재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4무 안심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1년간 무이자 보전비용에 필요한 49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추가 전출하게 됨.

####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기 금 전 출 금	66,876	61,976	4,900

-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직접 융자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이차보전금)을 합해 1조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무 안심금융 2조 3천억원과 경영안정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자금을 추가 조성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했음.

23) 구로구 구로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영등포구 영일시장, 종로구 신설종합시장

- 2021년 본예산(190억원) 외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sup>24)</sup>과 5차에 걸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관련 자금을 마련함.

### < 2021년도 코로나19관련 신설자금 >

구 분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2조 3,000억원)	민생안정자금 (5,000억원)
대상	(일반, 중·저신용)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저신용) 신용평점 839점(구, 4등급) 이하 (자치구) 자치구별 지원공고에 따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지원 ('20.9.7 이후)」 및 '21년 정부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자금지원 ('21.1.18 이후)」과 중복지원 불가
용자한도	(일반) 1억원 이내 (중·저신용, 자치구) 2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금 리	최초 1년간 무이자, 이후 4년간 대출금 리에서 0.8%p 이차보전	대출금리에서 0.4%p 이차보전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음 중 택 1 - 1년 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이러한 보증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40.8%가 폐업을 고려하고<sup>25)</sup>,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업체의 실제 휴·폐업이 코로나 이전보다 3.7% 포인트만큼<sup>26)</sup> 증가하는 등 취약경제계층의 경영악화는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창업자금(1,000억원)을 활용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2,000억원을 증액하여, 창업·재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무 안심금융을 신설(3,000억원)하고 재기·도약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24) 1차 추경 64억원, 2차 추경 19억원

25) '자영업자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설문조사'(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1.)

26)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21년 12월말 기준 보증기업 대비 휴·폐업률은 6.6%로, 2019년 12월말 (6.6%)과 보증기업 대비 휴·폐업률만 비교하였을 때, 3.7%포인트 증가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3천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49억원<sup>27)</sup>을 편성한 것으로, 5년간 필요한 총금액은 약 150억원으로 추계됨.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세부내역(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최종	2022년	
		당초	변경(안)
합 계	38,000	22,500	24,500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	2,000	2,000
시설자금	50	100	100
경영안정자금	1,950	1,900	1,900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1,000	1,200	1,200
간급자영업자금	500	500	500
기술형기업도약자금	50	100	10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100	100
성장기반자금	300	-	-
시중은행협력자금	36,000	20,500	22,500
일반자금	12,650	10,000	9,000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7,000	7,500	7,500
포용금융자금	-	1,000	1,000
저신용자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창업기업 자금	500	1,000	-
컨설팅 기반창업			
일반창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150	500	500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	5,000	-	-
특별자금	23,350	10,500	13,500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18,000	9,000	9,000
일 반			
중저신용		1,000	1,000
자치구	5,000	-	-
창업·재창업	-	-	3,000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	200	200	200
재기지원자금	-	150	150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00	100
여성고용우수기업	50	50	5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27) 3000억원 × 3.2%(CD금리+가산금리) × 186일(평균 대출잔여일수) ÷ 365일 = 49억원

## < 서울시 창업·재창업 4無 안심금융 지원계획(안) >

- 사업내용 :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4無 안심금융) 지원 추진(4無 :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 지원대상 : 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규모 : 3천억원 (최대 1만개 업체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일반 (재)창업 기업 : 최대 40백만원 이내
    - 컨설팅 이수기업 : 최대 50백만원 이내
    - 상권혁신 아카데미 수료기업 : 최대 7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무이자(1년간), 무보증료, 2차년도 이후 이차보전 0.8%p, 보증비율 100%,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속, 금리인상, 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용자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됨.
  - 다만, 기존 4무 안심금융으로도 지원 가능한 창업 후 1년 이내의 창업자와 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4무 안심 창업·재창업 자금’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재단의 출연금 규모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책자금 편성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함에 따라 소멸성 자금인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도 증가하여 기금의 운용손실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중기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별설명서 120쪽)

-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과 입점 후 조기 안착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0억 7천만원(54.8%) 증액한 47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했음.

###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754	1,684	3,070
사 무 관 리 비	2,804	84	2,720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1,950	1,600	350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온라인몰 입점을 희망하거나 입점 후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50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온라인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개요 >

- 사업기간 : 2022.3.~ 2022.12.
- 지원대상 : 온라인 입점희망 또는 입점 후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추진방법 :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 지원내용
  - 주요 유통사별 소상공인 맞춤형 입점 지원
  - MD상담회, MD초청 소상공인 상품 품평회 및 입점상담, 분야별 전문가 1:1 방문형 코칭 온라인 소비자 조사 및 컨설팅
  - 온라인 입점에 필요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페이지 제작, 상품패키징, 로고, 홍보영상 등)
  -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10개소 선정, 중점 육성 지원(교육부터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 통한 성공사례 시범화)
  - 소상공인 성공사례 등 스토리텔링 공유 및 홍보(스토리텔링화 사례집 작성)
  - 7% 할인 e서울사랑상품권 350억원 발행으로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 매출증대 기여

- 맞춤형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를 통해 지원되며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음.
-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을 350억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발행수수료 27억 2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음.
- 2021년에는 쿠팡, 티몬, 지마켓 등의 온라인몰에 전용상설관(쏠쏠마켓)을 운영하여 16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온라인 특별기획전인 ‘슈퍼서울위크’를 상·하반기에 실시해 각각 129억원, 17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음.
- 또한, 12월에는 온라인몰 11번가에 개설한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몰(e서울사랑샵)과 제로배달 유니온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356억원)하고, 할인혜택(5%)와 결제 페이백(10%)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과 매출 증대에 기여한 바 있음.
- 대형 온라인몰 입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할인쿠폰 발행, 입점수수료 인하 등의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SBA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사업(서울샵) 등의 사업과 중복우려가 있으며,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통합 브랜드화 등으로 차별화된 지원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상품권의 발행량과 유통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비율이나 할인비율별로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 편성해 왔던 점에서 e서울사랑상품권도 이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
김태훈	02-2180-8063